

지리교육과 2학년 여상길

2. 목포시의 자연지리적 특징

1) 지형적 특징

목포의 지형은 노령산맥의 서쪽 끝에서 남쪽으로 이어지는 고립적 구릉이 계속 되다가 해안부근에 이르러 유달산을 남기고 서해로 잠기는 모양새이다. 구 시가지는 반도의 최남단 저지대 중심으로 거의 원형에 가깝게 발달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호남선 철도의 종착역인 목포역이 자리하고 있다. 시가지의 남부 해안쪽에 위치한 삼학도는 과거에 섬이었으나 해안의 제방축조와 연륙으로 육지화 되었다. 시역내의 산으로 반도 서남단에 위치한 유달산(228m), 신시가지와 구 시가지 사이에 위치하여 이들 양 지역을 경계짓는 대박산(156m), 양을산(153m), 입암산(120m), 그리고 지역의 동부경계를 따라 분포하는 지적산(189m), 부주산(140m), 부흥산(99m) 등이 있으며 이들 산 사이에 비교적 경사가 급한 소규모 구릉으로 이루어져 있다.

2) 기후적 특징

목포는 위도 상으로 북반구 중위도 남부에 자리잡고 있어서 기후가 온난하고 사계절의 변화가 뚜렷하여 인간활동에 매우 유리하다. 목포의 기후는 온대기후로서 겨울철에 북서계절풍의 영향으로 비교적 많은 눈이 내리고, 여름철에는 해양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기 때문에 열대와 같은 무더위가 나타난다. 연평균 기온은 13.6° C로서 비교적 온화한 편이며 가장 추운달인 1월의 평균기온은 1.9° C로서 같은 위도상의 내륙지방보다 높고 가장 따뜻한 달인 8월의 평균기온은 26.6° C로 같은 위도상의 내륙지방보다 낮다. 연평균강수량은 1,166mm로 남부지방(여수 1,313mm, 부산 1,381mm, 광주 1,222mm, 제주 1,439mm)에서는 비교적 적은 편에 속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볼 때는 평균치에 가깝다. 강수량의 계절별 분포를 보면 남풍 내지 남서계절풍이 불어오는 여름철의 강수집중율이 가장 높아 6~8월의 3개월사이에 45.4%의 비가 내린다. 목포항의 조석은 우리 나라 서해안에서 탁월하게 나타나는 반일주기의 조석이 우세한 1일2회 조석의 형태를 나타내며 서해남부 해안 중에서는 조석간만의 차가 그다지 크지 않은 편에 속한다.

3. 역사적 특징

1) 목포의 유래

일찍이 삼한시대에는 마한에 속하였고 삼국시대에는 백제의 물아해군이었다. 통

일신라시대에는 무안군으로, 고려시대에는 물량군, 또는 무안군으로 불렸다. 이러한 이름들은 지금의 목포시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무안군과 함께 더불어서 불렸으며, 오랜 세월동안 이 고장의 행정구역은 여러 번 바뀌었으나 조선조에 이르러 나주목의 속현으로 이어왔다

「목포」라는 이름은 <고려사>라는 역사책에서 처음 나오는데, 땅이름의 유래는 정확하지 않다. 나무가 많은 포구라 하여 목포(木浦)라고 불렀다고 하고, 목화가 많이 난다하여 그렇게 불렀다는 설도 있으며, 서해로부터 육지로 들어가는 길목이라고 하여 목포라고 불렀다고 하는 등의 주장이 있다.

2) 개항 직후의 목포

목포는 1897년 10월 1일 개항을 통하여 개항장으로서, 그리고 근대도시로서 새롭게 태어난다. 목포의 개항은 일본에 의한 타율적인 개항보다는 당시 대한제국 정부에서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서 일본 측과 하등의 상의 없이, 조약이 아닌 칙령으로써 이루어진 주체적인 것이었다. 조선정부는 당시 대한제국으로 국제(國制)를 개편하는 등 나름대로 자주성을 지키면서 근대화 정책과 국방강화책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데 관세가 차관도입 시 담보설정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데 착안한 것이었다.

개항 이후 목포항의 무역은 미곡수출, 서양산 면포수입이라는 내용을 주로 하여 이루어졌고, 이는 대한제국이 미면교환체제⁴⁰⁾라는 저개발형 통상구조로서 세계 자본주의시장에 종속되는 의미를 갖고 있었고, 미곡수출의 증가는 지주·상인층의 자본축적을 가져왔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곡가양등을 가져와 도시빈민과 빈농들의 경제적 궁핍을 가중시켰다. 반면 도시적인 측면에서 개항은 목포가 근대도시로서의 형태를 갖추고 근대문물의 빠른 유입과 발전을 이루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4. 목포시의 산업경제

1) 동북아시아의 물류거점

목포는 부산, 인천과 함께 국내 3대 항구 도시로 손꼽히던 곳이었다. 하지만 경제개발이 시작되면서부터 목포의 위상은 예전 같지 않다. 서울-대구-부산으로 이어지는 중부벨트가 경제개발의 중심이 되면서 목포의 발전은 상대적으로 늦었고 그만큼 낙후되고 말았다. 하지만 중화권에 대한 수출이 대미(對美)수출을 앞지른 요즘 목포는 다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목포는 중국 최대의 교역도시인 상하이

40) 미면(米綿)교환 = 쌀과 면직물의 무역

와 대륙횡단철도가 시작되는 렌윈항에서 최단 거리에 있어 한 중 교역의 관문 역할을 하기에도 더없이 좋은 위치에 있다. 이렇듯 목포는 21세기 동북아시아 시대의 물류거점으로서의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2) 대불산업단지

1988년 목포권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산업기지 개발구역지정 공시가 되고 1989년 토지공사가 사업주체가 되어 단지조성공사를 착공하여 1996년에 완공하였으며, 지원시설은 공업용수시설 1일 11만5,000톤, 전력 12만kW, 통신시설 9000회선, 단지도로 50kw, 하수시설 56km, 폐수처리시설 1일 5만 6,000톤 등이다.



《대불산업단지》

출처 : 중앙일보2004.03.30

대불산업단지는 1996년 350만평의 부지에 터를 닦았다. 그러나 산업 기반시설이 턱없이 부족해 기업들이 등을 돌려 왔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서해안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공장 입지여건이 나아진 데다 분양 가격도 저렴해 분양이 활기를 띠고 있다. 또한 저렴한 땅값과 편리한 입주 조건도 대불산업단지가 내세우는 강점이다. 공장용지 분양가 평당 25~30만원은 국가산업단지 가운데 최저 수준이다.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도 지정돼 일반 공장용지 분양금을 무이자로 5년간 나눠 낼 수 있도록 하였다.

5. 목포의 관광자원

1) 해양·문화 관광특구

목포는 천혜의 관광자원이 있으며 다양한 관광시설을 갖춘 서남해안권 관광벨트의 중심지역이다. 특히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과 함께 KTX운행, 무안국제공항개항, 연안여객선 완공 등 주변 교통 인프라까지 완비되면 어느 지역보다도 접근성이 용이해 앞으로 많은 관광객이 몰려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목포는 세계적 해양관광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목포 해양·문화 관광특구지정을 신청했다. 특구 지정이 확정될 경우 특구 내 특급호텔의 카지노설치와 난관에 봉착한 해양음악분수사업, 목포타워 등이 설립될 것으로 보이며 외자유치에도 상승작용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

2) 목포 해양 문화 축제

서남권 해상영웅들의 나들목으로서 평화로운 바다를 지향했던 목포만의 독특한 해양문화와 풍부한 수산자원을 활용한 축제로서 축제를 통해 해양문화중심도시 건설의 최적지인 목포의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미항목포의 이미지를 브랜드화하여 해양 관광 도시로서의 목포를 상품화 하고 있다.

《참고문헌》

- 김재철 / 2000 / 지도를 거꾸로 보면 한국인의 미래가 보인다 / 김영사
- 구두훈 / 2004. 03. 31 / 중앙일보

《참고사이트》

- 목포시청(<http://www.mokpo.go.kr/>)
- 목포문화원(<http://www.mokpoculture.or.kr/>)
- 목포개항100년사(<http://100.mokpo.go.kr/main.htm>)